

오이데이엔 '구레 산소오이' 드세요

아침을 열며

정연권

구례군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늘은 '오이데이(52day)'다. 5월 2일을 숫자로 쓰면 52(오이)가 된다는 데서 나온 말로 2002년 농촌진흥청에서 오이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오이 먹는 날'로 정했다. 이에 부응해 최근 구례 농협에서 오이 80박스(4천 개) 분량을 나눠 주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지리산 인근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필자로서 오이가 제맛을 낼 때는 산나물이 나올 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삭함과 상큼한 향을 가득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씹살한 산나물이 웅크렸던 미각을 깨우니 밥맛이 좋아진다. 얼마나 어린순을 초장에 묻혀 매콤달콤한 맛과 씹살한 향에 전율을 느낀다. 오이와 산나물을 먹으며 봄맛의 정점에서 행복하다.

봄맛을 느끼고자 맛있는 오이를 사러 김민근 하우스에 갔다. 오이가 일렬로 사열 받듯이 당당하게 서 있다. 진 푸른 오이를 주렁주렁 달고 있어서 늠름하기까지 하다. 노란 꽃송이가 앙증맞다. "아픈 허리는 괜찮은가?" 오이보다 건강부터 물었다. "아파도 가족을 위해 해야지요. 딸이 셋이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작황은 좋는데 수확량이 궁급했다. "올해는 봄잠마로 수확량도 적고 단맛이 덜해 속상합니다." 안타까운 답이 돌아온다. 가장의 무거운 마음이 보이는 듯하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오이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대한민국 최고 '구레 오이'는 80 농가에서 11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가당 1억 2,999만 원이니 고소득이다. 80년대에는 600여 농가였는데 많이 줄었다. 애호박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있고, 나이 들어 힘든 오이 농사를 접었기 때문이다. 약조건에서 구레 오이 명성을 지키려는 열정에 응원과 감사를 보낸다.

구레 오이가 왜 명품이 됐을까.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오이 정식 전 퇴비를 넣고 깊이 경운해 흙과 잘 혼합되어 때알구조 형성으로 통기성이 좋다. 튼튼한 뿌리가 깊게 뻗으니 줄기도 견실하다. 열매도 잘 열리며 병해충에 강하다. 줄기 길이가 10m 이상에 이르고 한 주당 20개 이상 수확하니 대단하다.

게르마늄이 함유된 '산소(O2)오이'다. 전남보건의료연구원서 구레지질을 조사 분석한 결과 모양이 게르마늄 성분이 높은 변성암과 화강편마암으로 분포돼 토양 내 게르마늄이 1.59mg/kg으로 다른 지역보다 평균 5배 정도 많다. 게르마늄은 1930년 프랑스 루르드(Lourdes)의 샘물이 여러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큰 화제를 일으켰다. 게르마늄 성분은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산소공급을 증가시켜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빈혈,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과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토양에서 재배되어 산소 오이이라는 별칭이 구레 이미지와 부합된다.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돼

있어 '물외'라고도 부른다. 오이 재배에서 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구레에서 생산된 생수는 PH7.4~7.5 정도의 알칼리성으로 부드럽고 우리 몸 혈액에 맞는 물이다. 미네랄은 1당 194mg로 삼다수 40mg보다 3배나 높다. 게르마늄이 1당 1,068µg 함유돼 일반 생수 1당 0.544µg의 2배다. 노화방지에 관여하는 리튬이 1당 8.627µg, 당뇨병 환자의 혈당 개선의 효능이 있는 바나듐 1.063µg, 몰리브덴 1.734µg 등 미량원소를 갖고 있다. 오이 농가 지하수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레 농부들이 매일 아침 수확한 오이를 등급별로 선별한 덕택에 품질이 균일하다. 적절한 환기와 변은 관리로 오이가 단단해 저장성이 강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다른 지역 오이보다 맛이 담백하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다는 평가다. 풋풋하고 상큼한 향이 진하면서 수분도 많이 자꾸만 먹고 싶어진다.

오이 한 개에는 1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 있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한다.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면서 감기 예방효과도 있다. 칼륨,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식탁을 향기롭게 한다. 쓴맛을 내는 '엘라테린(elaterin)'이라는 성분은 소화와 건위(健胃) 작용을 한다.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산 등 함량이 높아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번 주말 산행하면서 오이를 챙겨가시길 권한다. 등산 시 먹는 오이는 갈증 해소와 상큼함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구레 산소 오이가 건강과 행복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한다.

社說

'복지장례 조례안' 보편복지 주춧돌 되길

신수정 의원 의안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연고자·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한 복지장례 지원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가 사망자와 그 가족에게 따뜻한 시간들에 대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신 의원의 바람처럼 이번 조례안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광주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한다.

현재 발의된 조례안의 지원대상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중증장애인, 75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독사로 마을공동체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망자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연고자가 구속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등도 포함됐다. 모든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지원대상을 제한시킨 점은 다소 아쉽지만

공영장례라는 진일보한 사회보장 정책이 발의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최근 3년 간 광주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44명에서 2022년 57명, 2023년에는 9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 수 역시 2021년 6만 1263명, 2022년 6만 5616명, 2023년 7만 449명으로 증가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 이들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이 변변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은 지역사회 모두의 부끄러움이다. 광주라는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을 돌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도 크다.

복지장례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복지장례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광주에서 복지장례가 보편적 사회보장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시와 각 자치단체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의 복지를 한층 두텁게 만드는 선제적 복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 삶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존엄해야 한다.

'일조량 감소' 농민에만 피해 떠넘길 텐가

장기적인 농업대책 마련해야

전남도가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마늘 2차 생장(별마늘)을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차 생장으로 생산량 감소는 물론 포전거래까지 이뤄지지 않아 농업인이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온난화와 이상 기후는 국가적 재난에 다름 아니다. 농업을 보호하고 위험을 분산 시키려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주요 시·군 평균 강수량은 평년 73mm에 비해 49% 증가한 110mm로 집계됐다. 반면 일조시간은 183시간에 이르던 평년에 비해 24% 줄어든 139시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일조 시간이 줄면서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이 4월 기준 마늘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전체 마늘 재배면적 3443ha 가운데 20% 정도가 2차 생장이 발생했다. 2차 생장은 마늘 알맹이 하나 하나에 잎이 올라오는 피해다. 통상 6-

10일이 생성돼야 할 마늘 한 쪽에서 최대 20여 개 정도의 마늘 알이 불규칙하게 자라 판매조차 불가능하다.

올 들어 비오는 날이 계속되면서 전남은 역대급 일조량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멜론과 딸기, 파프리카, 장미 등 주요 농작물도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떨어지고 상품성이 저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그야말로 재난에 가까운 이상 기후가 가져온 결과다. 일조량 변화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특성과 계절 패턴의 변화가 가져온 분명한 재해다.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예측하는 것도 어려워 농업에도 큰 악 영향을 미친다. 더 이상 농민에게만 피해를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2중고를 넘어 3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저품위 마늘 수매가 이뤄지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농업 대책도 필요하다. 기후 변화는 위기이면서 기회다. 변화하는 기온과 환경에 맞춰 적합한 농작물을 선택하는 것은 농민과 자치단체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숙제가 됐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유타대학교에서 경찰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뉴시스

서석대

'친구', '아침이슬', '상록수'...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로 민중을 위로했던 천재 뮤지션 김민기의 자작곡들이다. 1970년대 유신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그의 노래는 해방가였고 애국가였다.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며 민주화 투사가 됐다. 용기를 내 독재에 항거했고 모두 하나가 됐다. 민주화와 노동 운동은 김민기의 숙명이 됐다.

요즘 SBS에서 방영중인 '학전 그리고 뒷길 김민기'가 인기다. 김민기와 학전에 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라는 입소문을 타고 2주 연속 동시간대 지상파 1위 자리를 수성했다고 한다. 김민기는 1991년 서울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學田)을 열었다. 음반 계약금으로 문을 열고 저작권료와 집을 담보로 극장을 운영했다. 김광석, 유재하, 강산에, 동물원, 안치환 등이 학전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김광석이 '1000회 공연'이라는 전설을 쓴 곳도 학전이다.

지난달 28일 방송에선 노동자와 함께 한 김민기의 삶이 그려졌다. 유신정권은 학생들이 '아침이슬'과 '친구'를 불렀다는 이유로 그를 반란의 주동자로 몰았다. 모든 노래는 금지곡이 됐다. 음악활동이 막혀버린 김민기는 군 제대후 인천의 피혁공장에 행정직으로 위장 취업해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같이 둘러앉아 기타를 쳤고, 야학을 통해 배움을 전했다. 여기에서 노동자 부부의 합동 결혼식을 위해 만든 축가가 '상록수'다. 처참한 노동현장을 목격한 그는 노래로 참혹한 노동자들의 삶을 세상에 알렸다. 카세트테이프로 녹음된 노래 '공장의 불빛'이다. 한국 최초의 비합법 앨범은 노동자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고,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이 노래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다. YH 무역 공장 노동자들의 농성과 강제 진압은 야당 총재 김영삼의 제명, 야당 해산, 무마항쟁, 결국 유신의 종말로 이어졌다. 태풍을 일으킨 나비의 날갯짓은 공장 노동자들의 '울림'이었다.

1978년 김민기는 야학운동(들불야학)을 하던 전남대생 고 박기순의 영결식에 참석해 반주도 없이 '상록수'를 불렀다. "우리를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축가가 장송곡으로 바뀌어 민중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1일은 노동의 의미를 돌아보는 노동절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존엄과 가치는 인정받고 있는가.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